

August Konkel 박사, 역대기, 세션 21, 성전의 종말

© 2024 거스 콘켈(Gus Konkel)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21회차, 성전의 멸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불충실함과 연대기 기자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보좌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왕국을 운영하겠다는 결심으로 인해 통치가 매우 위태로워진 두 왕의 이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웃시야의 통치이다. 이를 역사적,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8세기 초반이다. 웃시야는 8세기 전반에 걸쳐 아주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하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열왕기서로 돌아가면 여로보암 2세가 북쪽의 왕이고 북쪽 이스라엘이 이 시점에서 실제로 이전에 없었던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여로보암 2세 치하의 왕들에 묘사된 이스라엘의 경계는 이전처럼 아람 소바 지역과 홍해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북쪽, 특히 이스라엘에서 매우 퇴폐적인 시대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지자 아모스의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의 부패와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를 땅에 짓밟는 방식을 지적합니다. 먼지 등등.

이제 동시에 통치한 웃시야는 실제로 이러한 정치적 행운의 수혜자였습니다. 이는 주로 아시리아인들이 여전히 종말의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예후와 그의 끔찍한 숙청 시대 이후에 군대를 재건한 여로보암의 세력 아래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윗시야는 그로부터 어느 정도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윗시야 통치의 마지막은 성전의 멸망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므로 이 기간은 매우 번영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지만 성전에 관한 한 매우 비참한 방식으로 끝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윗시야로 알려진 왕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는 아사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윗시야의 통치는 매우 뚜렷한 두 기간으로 나누어진다. 군사적,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블레셋 영토를 확장하며 요새를 건설하고 농업이 발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윗시야는 이 모든 것을 매우 옹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북쪽에 있는 그의 가장 중요한 이웃인 여로보암 2세에게도 일어나고 있던 일과 일치하여 보여집니다. 그래서 윗시야는 이 모든 성취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윗시야의 통치는 그다지 좋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윗시야만이 제사장의 권위를 찬탈하려고 시도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전에서나 유다에게 있어서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토라로 거슬러 올라가면 왕과 제사장 사이에는 분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토라에 따르면 왕과 제사장의 두 역할이 항상 분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왕과 제사장이 되시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에 대한 해석을 통해 어떻게 예수의 경우 이 두 직무가 결합되어 예수가 왕이자 제사장이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유다 시대와 성전 시대에 있어서 이것이 매우 뚜렷한 점은 그것이 다른 모든 나라들과 대조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에서는 왕이 제사장이고, 왕은 성전의 모든 활동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명기가 명확하게 설명하듯이, 이스라엘에서 왕은 이 토라의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 지시문의 사본을 옆에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 지시를 따라야 했고 그의 백성들이 이 지시를 따르도록 인도해야 했습니다.

왕은 그 자체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의 계시 아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왕이었으므로 다른 모든 백성과 마찬가지로 언약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요구에 복종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역할이고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이 언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역할이 매우 뚜렷하게 부여됩니다.

그리고 물론 민수기와 레위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제사장들이 아론의 후손인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지만, 왕은 결코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의 이러한 분리는 그들이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왕이 단독으로 이행하도록 지정하신 여호와께 종속되어 있음을 항상 분명히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대표하는 것, 성전을 통한 표상, 성전의 모든 의식과 그 밖의 모든 것은 제사장이 수행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성전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지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인 카포다트(kaphodot) 에 피를 뿌립니다. 이것이 그들의 칭호이며, 이것이 바로 왕과 백성이 거룩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들을 거룩하다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언약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보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과 구별되어 거룩하며,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하나님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거룩하다는 존경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례의 기능에는 더 많은 구별이 있으며, 오직 레위인만이 있고, 성전에서 의식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구별을 가진 사람은 오직 레위인의 일부인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그러므로 웃시야 왕이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려 한 것은 그다지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약을 완전히 위반한 것이며, 언약을 대표하는 구조물, 특히 성전과 그 기능을 대표하는 구조물을 완전히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웃시야가 범한 매우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고립이라는 전체 사업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14일 동안 격리해야 하고 14일 동안 다른 사람과 사회적으로 교류할 수 없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 그것이 여기 캐나다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립의 위협을 안고 활동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감옥에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롭지만 어떤 종류의 접촉도 할 수 없고 갈 수 있는 곳이나 그런 것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된 의미에서 자유롭습니다. 고대의 나병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 나병이 일종의 피부병인 나병이 치료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한센병은 아니었지만 나병환자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 격리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범주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웃시야는 제사장의 권리를 침해한 죄로 인해 나병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왕으로서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웃시야의 종말에 관한 슬픈 이야기입니다. 웃시야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요담의 통치 시기를 살펴보면 요담 시대는 8세기 후반이다. 웃시야는 약 840년에 죽습니다. 웃시야는 이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여호와를 보니 높이 들리셨도다 이제 그것은 웃시야에게 매우 중요한 계시였습니다. 실제로 웃시야가 죽었을 때,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이후에 반복적인 암살과 마지막 왕들 사이의 경쟁적인 규칙이 있었던 북쪽에서 이미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베가와 르신과 베가와 그 밖의 사람들. 정치적 시대는 매우 불확실했고, 부분적으로는 정치적 시대가 매우 불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앗수르 황제 디글랏 빌레셀이 이제 아람

사람이나 시리아 사람을 북쪽으로 이주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그 왕들에게 큰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40년에 웃시야가 죽었을 때 이사야는 왕이 누구인지, 높으시고 높이 들리시는 여호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담이 통치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시기 직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연대순으로 계산한다면 요담은 그의 아버지 웃시야와 꽤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겹쳤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해야 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전히 왕이었지만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의 아들 요담이었습니다. 여기 Chronicler에 보도된 대로 Jotham은 실제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웃시야와 같았습니다. 보세요, 그의 통치가 시작될 때 웃시야는 유다를 번영하게 하고 성전을 예배의 장소이자 우선순위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으며, 정치적으로 요담은 여전히 트랜스요르단에서 어느 정도 통제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연대기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웃시야의 후계자인 요담은 사실상 역대기 기자로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는데, 이는 그의 후계자인 아하스와 반대되는 것이다.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종말이 임할 때 유다를 다스릴 왕입니다. 디글랏빌레셀이 살만에셀 5세가 된 후, 사르곤 2세가 된 후, 본질적으로 이사야서 8장과 9장 또는 7장부터 9장에 설명된 대로 이스라엘은 앗수르 속주, 바다 지역, 갈릴리 지역, 민족의 영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722년에는 사마리아의 패망, 모든 통치의 종말, 호세아의 통치의 종말, 그리고 포로 이주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일이 열왕기하 16장과 열왕기하 17장에 일어납니다.

역대기 기자는 요담의 후계자인 아하스가 이 모든 사건들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앗수르의 지배로 인해 바알 숭배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그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왕들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왕에게 이익이 되기 위한 어린이 희생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압 왕에 관해 읽은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불 가운데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이러한 모든 언급을 면밀히 조사해 보면 죽은 유아를 위한 장례식과 비슷합니다. 히브리어로 토페트로 불리는 의식에서 . 그래서 이것은 이 아이의 몸을 토페트 에 태워서 다른 신들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

엄밀히 말하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아니지만, 도와야 할 다른 신들에게 봉헌하는 봉헌식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스는 실제로 매우 심각한 방식으로 혼합주의에 관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이사야서에서 알 수 있듯이 아하스는 북쪽에 있는 두 이웃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우선 베가는 이스라엘에 있고 르신은 수리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듯이 베가와 르신은 둘 다 점점 늘어나는 아시리아 군대의 침략에 저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앗수르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맺으려고 했고, 아하스는 이 동맹에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하스가 르신과 베가의 동맹에 가담하는 대신에 한 일은 자신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앗수르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다지 현명한 움직임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아시리아인들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점령을 중단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도 별로 현명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스의 후계자인 히스기야의 이야기에서 알게 되겠지만, 그들의 명단에 다음으로 오른 사람은 분명히 유대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아하스의 다소 비극적이고 끔찍한 책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역대기에서 선지자 오벳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오벳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이제 앗수르 세력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형제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들이 앓수르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데드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으려는 아하스의 시도가 완전히 실패했고 재앙이었다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성전의 완전히 새로운 시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역대기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두 번째 솔로몬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점령당했으며, 그들 중 일부는 포로로 잡혀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온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사명을 묘사하는 역대기 기자의 전체적인 초점이 됩니다. 성전은 아하스의 통치 하에서 낮은 수준에 이르렀지만, 국가로서, 세력으로서 북방이 사라지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결집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21회차, 성전의 멸망입니다.